

국제백신연구소 건물 제공식 축사

존경하는 사무엘 카츠 이사장님, 존 클레멘스 소장님,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국제백신연구소에 훌륭한 건물을 제공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제기구 건물답게 아름답게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제백신연구소 임직원 여러분, 국제후원단과 한국후원회 여러분, UNDP를 비롯한 국내외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영상물에서 '땡큐 코리아'를 외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처럼 소중한 일을 우리나라에 맡겨 준 국제사회에 더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앞으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바로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지금

도 매년 수백만 명의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이 백신을 제때 구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스·조류독감과 같이 새로운 질병에 대한 백신 연구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백신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일은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60,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으로 큰 고통을 치렀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도움을 돌려주며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백신사업의 중요성을 절감해 온 우리는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세심하게 국제백신연구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완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많은 분들이 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아내도 한국후원회의 명예회장으로서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힘껏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서울대학교와 우리의 우수한 연구인력도 백신연구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백신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한 황우석 교수님도 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미 서울대학교와 백신연구소간에 공동연구와 같은 협력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욱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훌륭한 연구업적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국제백신연구소가 백신 개발의 메카로서, 세계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